

大學圖書館의 이상과 현실

韓 相 完

(延世大 文獻情報學科)

1. 심각한 大學圖書館의 現場

우리의 대학도서관들은 그 최소한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학인들이 과연 긍정적으로 대답할 수 있을까?

지난 해 10월에 서울대 도서관에서는 그 도서관의 중요한 이용자인 대학교수들이 대학도서관의 만성적 예산부족과 빈곤한 장서 등으로 한낱 독서실로 전락해 버린 도서관을 명실상부한 大學의 心臟으로 가꾸기 위해 발벗고 나서서 도서관 살리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기사가 신문에 실린 일이 있다. 그 기사 말미에는 대학도서관, 그것도 서울대학교 도서관이 명실공히 대학의 심장으로서 거듭나는 데는 많은 난관이 가로놓여 있다고 하면서 대학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구입할 전문인력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고, 각종 학술문헌정보를 이용자에게 종합적으로 제공할 전산화시스템도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도서관 살리기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들은 도서관 운영의 합리화와 효율화를 위해서는 專門司書制度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진단하고 있었다.

필자가 봉직하고 있는 연세대에서는 열악한 교육연구 환경개선을 위하여 학생들이 白캠프를 간행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첫번째 대상이 대학

도서관이었다. 학생들은 세련된 논조로 백서를 발표하지는 못했어도 학문연구의 중심기관인 대학도서관을 개혁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하고 있었다. 그들은 국내에서는 가장 우수한 대학도서관 중의 하나인 연세대 중앙도서관을 가리켜 “7시 30분만 돼도 꼭 차버리는 열람실! 책을 신청해도 원하는 책이 있는 경우보다 없는 경우가 더 많아 허탈해 하는 학생들! 입학할 때의 도서관 사정이나 졸업할 때의 사정이 그게 그것뿐인 도서관!”이라고 질타하고 있었다.

위의 두 예는 대학도서관에 관한 전문가들의 진단이 아니다. 그러나 교수와 학생이라는 대학도서관 이용의 양대 이용자집단으로부터의 평가라면 이는 대학도서관의 현장을 묘사함에 있어서 실로 무겁고도 무서운 소리임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오늘의 대학도서관을 전문가의 입장에서 살펴보았을 때 과연 어떠한 것인가는 물을 필요도 없을지 모른다. 사실 대학인들이 도서관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평점 이상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우선 교수집단의 의견은 전공자료에 관하여 교수 연구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인 서재 이상의 질 높고 최신의 자료를 대학의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다고 믿는 교수는 거의 없다. 교수 개인이 정기구독할 수 없는 학술지 정도를 이용할 때 도서관이 줄나온 정도로 이해하고 있으며, 참고문헌을 서지

적으로 검색하여 도서관에서 대출하고자 할 때 빈번히 그 자료가 소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그렇다고 도서관에서 이를 도서관 상호대차·등 제도적으로 타도서관 혹은 외국에서라도 대출하거나 연결하여 주는 노력도 없다. 연구진행이나 교과과정의 참고자료로 꼭 필요할 시점에서 자료검색을 했을 때, 실패한 경험을 몇 차례 갖게 되면 머지않아 아예 「도서관을」 불신하게 되어버리는 것이다. 도서관이 「능동적으로」 정보자료의 「인수와」 해당교수의 전공과「관련된」 자료에 대한 안내 「등을」 해주는 「경우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크게」 「드물기」 「때문에」 「결국」 「부족한」 예산을 투자하여 「새로운」 「정보를」 「인수」 했다 하더라도 그 자료를 이용할 「적절한」 「이용자와」 「만나지」 못하게 되는 불행한 「경우도」 「꽤」 「다하다」. 결국 교수집단은 대학도서관이 「학생들의」 공부방, 즉 「讀書室」 정도라는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수들의 대학도서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사회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학생 이용자들로부터의 대학도서관에 대한 반응은 위에서 잠깐 살펴본 바 「있다」. 물론 이 경우가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전부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다. 몇몇 대학의 도서관들, 예를 들면 포항공대 도서관, 이화여대 도서관, 서강대 도서관 등 비교적 학생과 교수들로부터 신뢰와 긍정적 평가를 받는 곳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은 최대의 이용자집단인 학생들로부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정당한 평가를 받을 만큼 주어진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는 1987년 9월에 일어난 부산대에서의 「圖書館 改革運動」과 이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이는 1988년 3월 전남대 문헌정보학과 학생들과 동대학 총학생회가 연대하여 벌인 대학도서관개혁운동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일련의 운동은 '80년대 요원의 불꽃처럼 번지던 군부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반체제운동 혹은 좌익 성향의 진보정치운동이 아니었다. 대학이 가진 기능 중 훌륭한

교육기능과 연구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핵심적 기관인 大學 圖書館의 正常化를 요구한 학생 이용자들의 당연한 권리운동으로서 학생운동의 일반적 차원을 뛰어넘는 성숙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도서관 개혁운동은 시간적으로도 일과성 운동으로 그치지 않고 1년 혹은 2년간 계속되었으며, 내용 면에서도 전 대학 공동체의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를 얻고 있었다. 개혁해야 할 대학도서관의 부문들도 대학 도서관을 움직일 사람, 즉 사서와 도서관 운영자인 관장 문제, 건물과 시설 문제, 서비스 시스템 문제, 경영의 문제, 자료확충 문제, 예산 문제, 그리고 대학도서관이 처한 위상문제까지 실로 날카롭고도 추호의 거리낌도 없는 직설적인 질타와 변혁을 요구하고 있었다. 오랫동안 무사안일한 현상유지를 해오고 있는 한국의 대학도서관계에 이 일련의 개혁운동은 매서운 서릿발과 같았다. 이 운동은 대학도서관계뿐만 아니라 한낱 대학의 부속기관으로 방치해 놓다시피 한 대학당국에도, 교육부당국에도 커다란 경종이 아닐 수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대학도서관을 개혁하고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주체로서 대학당국이 연구하고 개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용자인 학생의 신분으로서 교육여건의 문제인 대학도서관의 개혁을 정면으로 들고 나온 것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었고, 대학당국의 이 문제에 대한 방만함과 무관심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었기 때문에 예사롭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다.

대학도서관 개혁운동은 각 대학들이 대학도서관발전위원회를 총장 직속의 한시적 위원회 등으로 설치하면서 장·단기 대학도서관발전계획을 수립하거나(부산대, 전남대, 경북대 등의 경우) 대학 종합발전계획의 일환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와, 도서관 개혁운동과는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도서관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서울대 도서관의 경우) 대학의 심장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들은 각 대학 내부에서 열악한 도서관을 개혁하고 電算化하여 그 이용을 現代化하려는 일련의 시대적 추이와도 맞물려 일어난 긍정적인 모습이었다고

평할 수 있겠다.

2. 大學 圖書館의 핵심적 問題

대학도서관이 이용자집단으로부터 불신과 외면을 초래하고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하게 된 핵심적인 원인과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대학도서관 地位의 格上

그동안 우리나라의 대학도서관은 한번도 그 기관이 가진 본래의 위치를 차지해 본 적이 없었다는 점을 우선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학도서관이 그 대학에 설치된 모든 단과대학과 대학원, 전문대학원 및 기타 교육기관에서 연구하고 가르치는 모든 일에 사실상 연관되어 있는 제 2의 고차원적 교육기관이며, 유형만 다른 대학, 즉 圖書館 大學(library college)으로서 연구와 교육을 비정규적으로 실시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부설기관이라는 딱지를 붙여 그동안 방치해 놓든가, 대학을 설치하고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형식요건으로서 동한시해 왔기 때문에 부실한 활동과 이용자로부터의 불신을 자초하게 된 것이라고 진단할 수 있다. 도서관은 대학의 수많은 부속기관이나 지원기관의 하나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대학도서관은 강의실에서 가르칠 수 있는 일정한 범주의 틀을 뛰어넘어 강의실과 유기적으로 연계한 또 다른 유형의 강의실이며, 연구실에서의 제한된 연구의 범위와 폭을 뛰어넘는 또 하나의 연구실임을 저간의 우리 대학발전과정에 관여했던 대학당국자나 교수, 학생, 그리고 교육부당국 모두가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歐美의 大學發展史에서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이 얼마나 큰 것이었던가를 이해할 만한 인사들조차 작금의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했던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대학도서관의 위상은 격상되어야 한다. 부속기관이 아니라 총장의 직속기관으로 도서관과 정보관리를 관장하는 學術情報 副總長制를 신설하여 대학도서관의 역할과 소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조직의 개편이 절실하다. 그리하여 매년 몇 %씩 증액되는 도서관 예산을 위하여 기획실장이나 재무처장에게 협의해야 하고, 정규사서는 말할 것도 없고 임시직 직원 한 명을 증원하기 위하여 몇 차례씩 총무처장에게 간청해야 하는 영향력이라곤 없는 마치 임시직과 같은 임기제의 도서관장의 역할로써 오늘의 문제투성이의 도서관을 어떻게 정상화하거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제 한국의 대학들은 도서관에 대한 획기적인 인식변화와 함께 대학도서관의 지위를 격상시키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 專門高級人力의 수월

한국의 대학도서관을 절름거리게 하는 또 하나의 문제는 도서관에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대학이 무엇인가? 전문인과 지도자를 기르고 가르치며 동시에 연구하는 곳이다. 그 대학의 도서관은 이러한 지식인, 지성인, 연구인을 대상으로 하여 학술정보를 주고 매료는 연구프로젝트에 동참하며 안내하여야 하고, 학생들을 위해서는 학습자료와 정보를 주며, 전인교육적 차원에서 전공 이외의 정서적 자료를 주고 안내하며 가르침으로써 젊은이들의 영혼을 맑게 하고 정서를 기르는 예술적이며 향기있는 자료를 선별하여 주어야 한다. 교수를 비롯한 연구원들, 즉 석·박사과정의 고급연구자들과 연구소의 연구원들에게는 깊이 있는 최신 정보와 자료를 검색하고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러한 일을 국립대학의 경우, 고등학교 정도나 나와 사서직 9급 시험에 합격하였다 하여 대학도서관에 근무하는 인사들이 과연 담당할 수 있는가?

전문대학이나 대학을 갓 졸업한 이들이 과연 이러한 업무를 잘 감당할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사들의 평균 학력을 살펴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주로 고졸과 일반대학을 마친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형편이고 뒤의 <표 1>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석사 이상급 正司職는 논의할 정도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

대학도서관의 직원이 대학구성원들인 교수와 학생에게 수준 높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안

〈표 1〉 주요 대학도서관 사서의 학력 비율

구 분	사서총수	1급정사서 (석사정사서수준)	2급정사서 (학사정사서수준)
경북대	47	7(15%)	28(60%)
고려대	37	5(14%)	24(65%)
부산대	47	0(0%)	39(83%)
서울대	113	4(4%)	57(50%)
연세대	32	6(19%)	26(81%)
이화여대	35	9(26%)	18(51%)
전남대	39	0(0%)	32(82%)
전북대	40	1(3%)	29(73%)
충남대	33	3(9%)	25(76%)

* ()는 사서총수와와의 비율
** 사서총수는 비전문직을 제외한 수

내하며, 학생들에게 때로는 교육해야 하는 고도의 전문직임을 인정해야 한다. 또 도서관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대학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인사들이 專門職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위에서 예시한 통계는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수준이 어디에 와 있는가를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마디로 한국의 대학도서관은 인력의 수준으로 보아서는 질 높은 활동을 하게 되어 있지 못하다.

특히 이러한 인력으로는 資料를 정리하고 보존하는 데는 적합할지 몰라도 知識과 情報에 대한 상담하고 정보를 줄 수 있고 분석하는 일련의 전문적 업무와 어떤 학문의 전문적인 주제에 대한 정보자료의 수집, 분석 및 정보조사제공(information services)을 해내기에는 적절치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대학도서관이 대학의 심장으로서 학술정보자료 센터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主題專門司를 확보하고, 그들을 전문가로서 인정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만 한다.

대학도서관에서 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최소한 정규대학에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했거나 이들이 계속교육을 받아 문헌정보학이나 다른 주제영역의 석사학위 이상을 갖춘 전문가들이 대학도서관에서 봉사하게 될 때,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은 그 최소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시발점에 서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전문가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아야만 한다. 전문직으로서 국

립대학의 경우,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여 전문가로서의 승진과 대우를 받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든가, 국·공·사립을 막론하고 일정한 학력(최소한 석사학위) 이상을 지니고 경력이 있는 이들이 행하는 업무는 전문사서직을 수행하는 것이지만, 그들의 신분은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 등으로 승진할 수 있는 教授職으로 대우하여 대학도서관이 소위 도서관대학으로서의 제 기능과 전문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일대 혁신이 필요한 때라고 판단한다.

미국의 대학도서관에 근무하는 대학사서의 교수신분 확보비율을 보면 최선의 통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장, 부관장 및 과장을 제외하고도 아래 〈표 2〉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43.7%나 되었다. 10년 후인 1980년에 미국의 학술연구도서관협회에서 조사한 대학도서관 전문직 사서의 교수신분에 관한 비율은 완전한 교수신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42%였다. 그보다 조금 늦은 1983년에 주립대학과 사립대학 89개 대학도서관을 조사하였는데, 완전한 교수신분을 소유하고 있는 비율은 주립대학의 경우 61.4%, 사립대학의 경우 18.7%였다. 그리고 교수신분은 아니지만 완전한 전문적으로 대우받는 비율은 주립대학이 38.6%였고, 사립대학은 81.3%였다. 1986년에 조사된 대학사서의 교수신분 소지비율이 61%로 상승한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는 이제 대학도서관을 지금까지와 같이 불신하면서 그대로 내버려 두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도서관이 도서관다워지게 전문인력을 공급하고 정착시킴으로써 활력을 불어넣어 학문의

〈표 2〉 미국 대학사서의 지위별 교수신분 소유 비율

교수지위소유	도서관장	부관장	과장	전문직사서	계
소유	64.2%	58.1%	51.7%	43.7%	51.2%
비소유	35.8%	41.9%	48.3%	56.3%	48.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인원수	341	234	813	863	2,251

*자료 : Schiller, A.R., "Academic Rank and Status", in *The Case for Faculty Status for Academic Librarians*, ed. Lewis C. Branscomb,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70, p. 78.

〈표 3〉 주요 대학도서관 장서보유 현황

(1992. 12. 31 현재)

대 학	장서보유량	학생 1인당 장서수
경 북 대	613,387*	32
고 려 대	1,011,416**	40
부 산 대	615,641*	30
서 울 대	1,568,399*	58
연 세 대	835,000	33
이화여대	668,703**	40
전 남 대	512,482*	21
전 북 대	382,012*	23
충 남 대	503,968*	30

* 정리중인 자료를 포함한 것임.

** 1991년 현재

수월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질 높은 대학도서관을 만들든가 선택하여야 할 기로에 서 있다.

3) 정보공유를 위한 電算化

아무리 훌륭하고 많은 정보자료를 갖추고 있는 도서관이라 할지라도 그 지역사회에서의 정보자료요구를 완전히 충족시켜 줄 수는 없다. 따라서 국내는 물론 외국의 정보자료에도 정보망(information network)을 연결하여 정보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학도서관의 전산화가 필수적 요건임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이 갖고 있는 정보자료의 양은 위 〈표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대학도서관의 장서량이라고 말하기조차 부끄러울 만큼 형편없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도서관의 전산화는 더욱 시급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실로 한국 대학도서관의 장서량은 우수한 대학들인 서울대, 고대의 경우 100만 권에서 150만 권 내외로서 다음 〈표 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외국의 주요 대학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장서량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형편이다. 우리나라 모든 도서관 중 가장 장서규모가 큰 서울대 도서관이 그 대학도서관 장기발전계획의 목표연도인 2001년까지 미국 대학 중 50위의 California Davis 대학 수준에 도달하고자 하는 정도이며, 미국과 캐나다 대학도서관의 장서보유량 순위로 통계를 내보았을 때에는 100위

〈표 4〉 외국 주요 대학도서관의 장서보유 현황

대 학	국 가	장서수*	학생 1인당 장서수	기준연도
옥스퍼드	영국	8,000,000	560	1991
캠브리지	"	7,000,000	503	1991
하버드	미국	12,169,049	660	1991
예일	"	9,013,561	870	1991
UC버클리	"	7,854,630	259	1991
스텐퍼드	"	5,987,592	440	1991
UCLA	"	5,625,521	155	1990
도쿄	일본	6,646,133	287	1991
교토	"	5,059,360	289	1991
규슈	"	2,953,933	209	1991
게이오	"	2,041,349	74	1991
토론토	캐나다	6,091,823	125	1991
하노버	독일	3,400,000	114	1990

* 각 대학의 장서수는 필자가 여러 자료에서 발췌·조사한 것임.

이내에도 들지 못하는 상황이나 구태여 도서관의 능력을 나타내는 ARL 지수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모자라는 대학도서관의 정보량을 극복하고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도서관의 전 시스템, 즉 서서시스템, 목록시스템, 정기간행물시스템, 정보검색시스템, 정보조사제공시스템, 경영시스템 등을 전산화하여 토털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내외의 도서관 및 정보센터와 정보망을 연결하여 명실공히 학술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학도서관을 발전시켜야 한다.

최근에 대학도서관 전산화를 추진하기 위한 활발한 노력들이 각 대학간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나 도서관 電算網을 구축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은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도 국가기간전산망을 추진하면서 금융, 행정, 공안, 국방망과 함께 교육연구망을 포함시킨 5대 기간전산망을 구축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며, 敎育研究網의 구축이 완성된다면 대학도서관 정보서비스의 질은 한 차원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 급변하는 지구촌 시대에 부응하여 연구환경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조성하여 주기 위하여 해외 정보망과 연결하는 것 등 情報共有(information sharing)를 위한 노력이 대학도서관이 수행해야 할 필수적이며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경제전쟁과 기술전쟁의 시대에 나라와 거래의 생존전략차원에서라도 최선의 정보를 교수, 연구원, 그리고 학생에게 제공하는 체계의 구축, 즉 海外學術情報網과의 연결은 이미 늦출 시간이 아닌 것이다.

최근 세계 단일전산망의 후보로 부상하고 있는 인터넷(Internet)에 대한 국내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도 대학도서관은 예외 주시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학술전산망인 한국통신의 하나망, 서울대가 주축이 되어 추진중인 교육전산망, 시스템공학연구소가 주관하는 연구전산망과 접속되는 인터넷은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에게 커다란 변화를 촉진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의 이용과 접속에 커다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4) 職制改革을 통한 새로운 대학도서관의 구현

대학은 정보사회를 선도하며 전문인재를 양성하고 새로운 학문과 기술을 연구해 내기 위하여 여기에 적합한 대학도서관을 가려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이 갖고 있는 체제인 수서과 혹은 서무과, 정리과, 열람과의 직제와 인사제도, 그리고 사서의 수준으로는 급변하는 후기산업사회에서의 대학도서관의 소임을 해낼 수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전문사서에 관한 문제는 이미 논한 바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직제를 어떻게 개혁하여야 새로운 대학도서관을 만들어 낼 수 있는가에 국한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굳어져 있는 각 대학도서관의 직제는 융통성 있고 탄력성 있게 再設計되어야 한다. 1990년 2월에 연구보고된 『서울대학교 도서관 장기발전 계획에 관한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대학도서관의 조직을 상황적응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이를 요약하면 대학도서관 직제의 설계를 구조적인 측면, 관리적 측면, 행동적인 측면으로 나누어서 조직을 탄력성 있게 유지한다는 것이다.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대학도서관을 일관된 원칙에 따라 분화하고, 권한·책임관계를 명확히 하며, 공식화를 강화하고,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명확한 계획 및 방침 수립에 따른 관리와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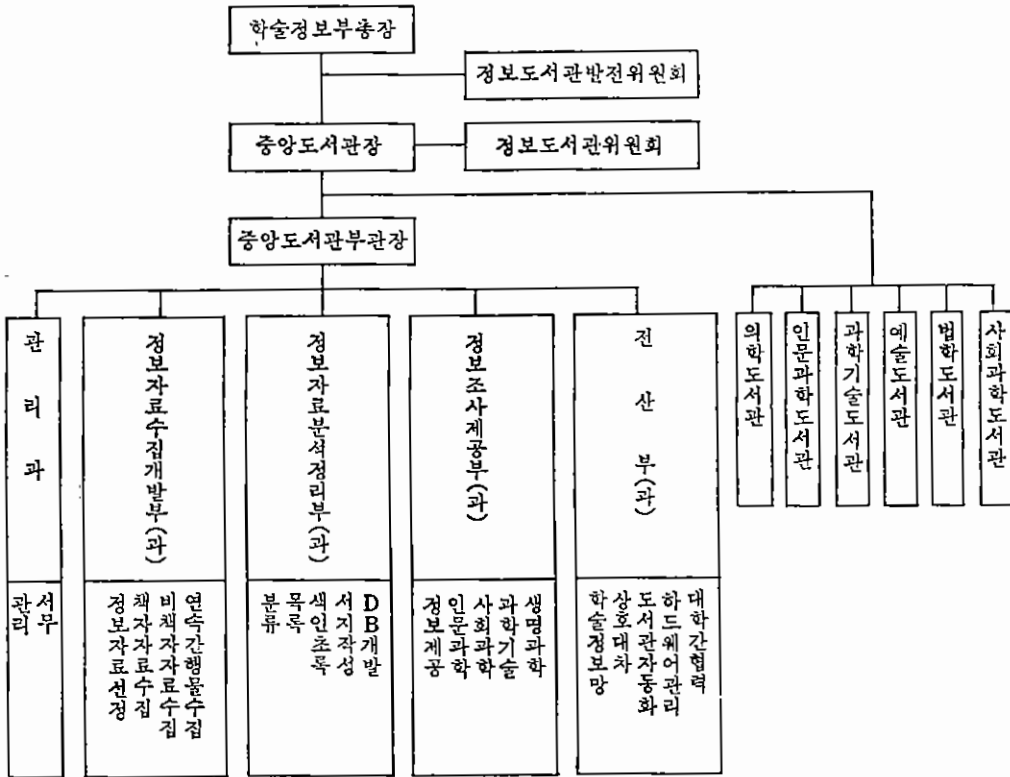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히 하고,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직제를 설계해야 하며, 행동적인 측면에서는 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조직구성원의 의식과 태도변화 전략을 고려하며, 일체감 계고를 위한 조직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적인 조직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學術情報 副總長을 정점으로 실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할 중앙도서관장과 부관장 각 1명, 정보도서관발전위원회, 정보도서관위원회를 대학도서관의 핵심부로 하고 1급 정사서와 주제전문사서 적정수를 중심으로 한 몇 개의 部 혹은 課를 설정·운영하고 이와 동일하거나 한 단계 높은 수준의 主廳別 전문도서관, 즉 分館을 운영한다.

가치있는 정보자료와 연속간행물의 신속하고 적절한 선택, 수집, 입수, 분석, 정리를 위하여 정보자료수집개발부(과), 정보자료분석정리부(과)를 두며, 전면 개가체에 의한 정보조사제공과 SDI(선택적 정보제공) 등 이용자 서비스를 위하여 정보조사제공부(과)를 조직하되 주제별 전문사서로 하여금 인문과학, 사회과학, 과학기술, 생명과학 분야의 전문적인 이용자 서비스 및 연구지원, 학습지원을 극대화하도록 종래의 열람과를 근본적으로 개편한다. 국내의 정보의 연결과 정보망 유지, 도서관 상호대차업무와 소프트웨어 개발과 도서관전산화에 필요한 하드웨어 유지, 그리고 대학도서관간 협동체제 유지를 위하여 전산부(과)를 두어야 하며, 그 대학의 캠퍼스계획과 현황을 감안하여 의학도서관, 과학기술도서관, 예술도서관, 법학도서관, 사회과학도서관, 인문과학도서관 등의 분관을 두되 주제전문사서와 1급 정사서를 적정선까지 배치하여 획기적으로 대학공동체의 수준높은 이용자들에게 정보제공의 차원을 높여야 한다. 이를 나타내면 뒤의 <그림 1>과 같다.

이러한 직제상에서 중앙도서관장과 부관장을 어떤 인사로 보임하느냐가 관건이 된다. 원칙적으로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교수가 중앙도서관장을 맡거나, 선진외국의 경우처럼 교수가 아닌 전문가를 초빙하여 관장직을 맡기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문헌정보학과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대학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문헌정보학 교수를 관장으로 임명할 수 없고, 또 전문가를 초

〈그림 1〉 바람직한 대학도서관의 직제



병하여 전임제 관장을 보임하는 것도 우리나라의 관행상 어렵다면, 관장을 타학문 전공교수로 보임하더라도 부관장은 필수적으로 전문가를 임명하여, 대학도서관의 운영을 아마추어인 비전문가에게 운번제로 맡게 하여 부실을 면치 못하게 하는 작금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전문사서의 教授身分附與制度를 과감히 도입하여 학력과 전문경력을 충분히 갖춘 전문사서가 교수적 대우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이 관장의 책임을 맡아야 대학도서관 운영의 정상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5) 파격적 豫算의 투입

필자가 봉직하고 있는 연세대의 경우, 국내 사학사상 최초로 학교의 재정내역을 공개하는 영단을 금년 5월에 내린 바 있다. 연세대의 1992년 한 해 동안의 재정내역에 따르면 도서관 입비가 14억 원으로 이는 지출 총액 1천 1백

30억 8천만 원의 1.23%였음이 밝혀졌다. 특정대학의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대학도서관들의 도서관 예산에 대한 상황을 정확히 진단할 수는 없지만, 위의 예가 한국의 가장 우수한 대학 중의 하나이며 가장 건전한 대학운영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점을 전제로 한다면 여타 대학의 경우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위상을 갖고 있는 대학의 도서관에 대한 도서관구입비가 전 대학 예산지출의 1.23%에 불과하다는 지수가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이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는 현수소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국립대학의 경우도 사립대학과 별 차이가 없다. 1992년 총예산대 자료구입비(국고와 기성회비를 합친)의 경우 서울대 0.9%, 경북대 1.28%, 부산대 1.4%, 전남대 1.6%, 충남대 1.6% 정도였다.

1980년에 문교부는 대학도서관 운영개선방안을 위한 지침을 시달한 바 있는데, 이 지침에 의하면 대학경상비(시설비 제외)의 3% 이상을 배

정해야 한다고 했고, 한국도서관협회에서 공식 기준으로 내놓는 한국도서관기준 중 대학도서관 기준에는 대학 총예산의 4%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문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예산은 이러한 최저기준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는 형편인 것이다.

이러한 기준들도 대학도서관의 정보자료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갖춰졌을 때 매년 추가되어야 할 최신정보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란 점을 감안한다면, 원래 열악한 자료량에 매년 추가해야 할 자료구입비조차 최저기준치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인 이 나라 대학들이 과연 학문연구와 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여건을 갖추려 노력하고 있는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치열한 국제 경제전쟁에서 이 겨레가 생존하기 위하여 부존자원빈국으로서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두뇌자원부국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길밖에 더 있는가? 고등교육이란 두뇌자원을 고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 고급두뇌를 세계 3, 4류로 떨어뜨리지 않을 방법은 전문가로서 전문지식과 정보를 충분히 섭렵하고 활용하는 길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대학도서관을 개혁하여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하여는 대학도서관의 예산을 현 상황에 비하여 파격적으로, 그리고 우선적으로 중점 책정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대학들은 최소한 10~20여 년간은 매년 대학도서관 자료구입비로 그 대학 전체 예산의 10% 씩은 지출하여야 겨우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정부는 무얼 하고 있는가? 대학을 살려야 하는데 대학 재정의 뒷받침없이 발전할 수 없다. 최근 정부당국이 국립대학은 물론 사립대학에까지 도서관구입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 것은 반갑고 또 잘하는 일이지만, 이를 대폭적으로 늘려 지원하여야 마땅하다. 여기에 맞추어 대학당국도 최우선적으로 대학도서관의 정보자료구입비를 증액하는 결단이 절실하다. 그래야만 대학도서관이 깊은 동면으로부터 깨어나기 시작할 것이며 대학인들의 깊은 불신으로부터도 회복되기 시작할 것이다.

3. 소망스런 大學 圖書館

대학도서관이 전 대학인의 교육과 연구의 심장이란 말은 이제 너무나 진부하다. 그리고 그 지극히 당연한 논리에 우리나라의 대학도서관은 너무나 멀리 어긋나 있었음을 또한 부인할 수가 없다.

대학의 도서관은 이제 정상화의 길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흠잡을 데 없이 변혁된 모습으로 거듭나야만 한다. 대학도서관이 한낱 대학에 있으나마나한 부속기관으로 뒤쳐져 있는 위치에서 격상되어, 그 실무담당자들을 적어도 1급 정사서 내지 주제전문사서로서 직급을 교수신분으로 대우하거나, 문헌정보전문직으로 법적으로 인정하고 전문사서를 대폭 수용하여 組織의 生動化를 가져와야 한다. 그리고 전 세계에 산재한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시의적절하게 검색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망을 유지하며 도서관의 모든 업무가 토털시스템으로 전산화되어 이용자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때 질 높은 교육의 수행과 학문의 연구가 비로소 가능해질 것이다.

이러한 이상적인 대학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급변하는 정보사회에 대응하여 정보자료를 공급하고 연구의 센터 역할을 하는 데 적용할 직제를 가져야 하는데, 정보의 원활한 유통과 이용자 개개인의 정보자료 요구에 적절하고도 수준높게 부응하기 위한 정보조사제공의 기능을 극대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리고 파격적인 예산의 투자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결국은 아무 변혁도 이루어 낼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이 허점투성이의 우리 시대 대학도서관을 정부당국이나 대학당국 그리고 문헌정보전문직이 합심하여 개혁하고 정상화시켜 그 가진 바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발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대학도서관의 存在理由와 機能에 대한 발상의 전환없이 우리는 세계 500개 명문대학 목록에 한국의 대학이 한 기관도 기록되지 못하고 있는 부끄럽고도 엄연한 현상을 극복하기는 어려울 뿐일 것임을 마음에 깊이 각인하여야 할 것이다. ■

〈參考文獻〉

- 『부산대학교 도서관개혁운동 자료집』, 부산: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1989.
- 『서울대학교圖書館 長期發展計劃에 관한 研究(1990~2001)』, 서울: 서울대학교圖書館, 1990.
- 『서울대학교長期發展計劃(1987~2001)』, 서울: 서울대학교, 1987.
- 孫正彪, 『慶北大學校圖書館 發展計劃에 관한 研究』, 대구: 慶北大學校, 1989.
- 『연세교육연구환경백서 I : 학술정보센터(도서관) :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이용자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서울: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및 대학원 총학생회, 1992.
- 연세대학교 기획실, 『연세대학교 발전계획안』, 서울: 연세대학교, 1991.
- 李炳穆, 『大學圖書館基準의 理論과 實際』, 서울: 九美貿易(株)出版部, 1985.
- 한국교육개발원, 『圖書館體制 確立 및 運營 活性化方案研究』, 서울: 동연구원, 1987.
- “학교재정내역공개”, 『연세소식』, 제193호, 1993. 6.
- 한상완, “대학교도서관 정보서비스론”, 서울: 구미무역(주)출판부, 1986.
- 한상완, “대학교도서관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의 모색”,

- 『진국사립대학교 도서관 협의회 제11차 세미나 주제 강연요지』, 속초: 1991, pp. 1~8.
- 한상완, “전남대학교 도서관 장·단기 발전계획”, 『분헌정보학보』, 제 4 집, 1990, pp. 235~272.
- ARL Statistics 1990~91, Washington, D.C.: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1992.
- 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Academic Status Survey*, Chicago: ALA, 1981.
- Dougherty, R.M., “Personnel Needs for Librarianship's Uncertain Future”, in *Academic Libraries by the Year 2000: Essays Honoring Jerrold Orne*, ed. by H. Poole, New York: Bowker 1977, pp. 107~118.
- English, T.G., “Librarian Status in the Eighty-Nine U.S. Academic Institutions of the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1982”, *College & Research Libraries*, May 1983, pp. 199~211.
- Hill, F.E. & Hauptman, R., “A New Perspective on Faculty Status”, *College & Research Libraries*, March 1986, pp. 157~159.
- Holley, E.G., “What Lies Ahead for Academic Libraries?”, in *Academic Libraries by the Year 2000: Essays Honoring Jerrold Orne*, ed. by H. Poole, New York: Bowker, 1977, pp. 7~33.